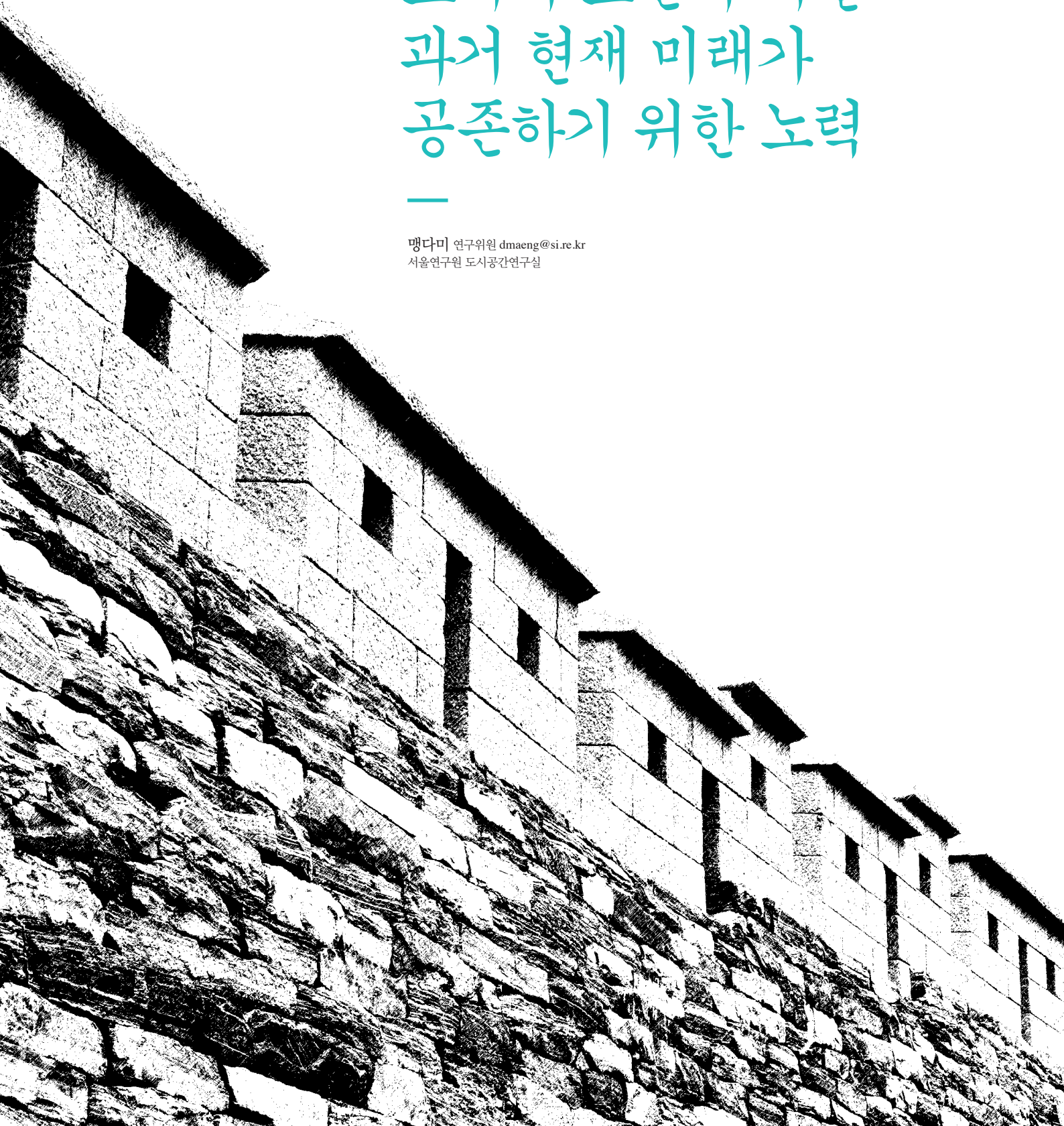


도시의 보존과 개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기 위한 노력

맹다미 연구위원 dmaeng@si.re.kr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도시의 변화와 발전은 단순히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보존보다는 개발의 논리에 밀려 역사문화자원의 옛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울수도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쳐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개발의 논리가 우선시되었다.

최근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궁극에는 경쟁력을 향상시킨 국내외 사례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창조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수도 개발 주도의 정책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한양도성을 지속적으로 복원하면서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 차원에서 역사도심 관리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기존 문화재에 대한 복원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 등 다양한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개발은 접점이 없는 평행선처럼 인식되어왔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기존의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개발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오랜 기간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해 온 유럽도시, 고도의 개발로 표현되었던 서울시의 한양도성 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 경제성장과 역사문화보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개발도상국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원고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 도시 중 런던, 파리, 함부르크, 취리히,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도시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보존과 개발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는 보존과 개발을 대립의 가치가 아닌 상생의 가치로 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원고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가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신청에 앞서 잠정목록에 제시된 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과 완전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서울시의 현안과 노력에 대해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한양도성을 보존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한양도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진정성을 공유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원고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후에시를 사례로 도시의 성장과 개발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의 노력을 어떻게 구체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역량개발을 유도하는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서울시의 정책적 노하우가 신흥국가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개발은 더 이상 해묵은 논의가 아니다. 과거와 같이 단일 사안에 대해 ‘보존 대 개발’이라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럽도시의 ‘공존의 지혜’에서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